

빙하기의 야생 생물

시간의 흐름을 잇은 생명체

미나미 알프스 지형의 대부분은 2만 년 전인 최종 빙하기에 빙하의 작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미 알프스의 산들은 대부분 빙하기에 서식지역을 남쪽으로 확대하였다가 기후가 온난해진 이후에도 산의 고산지대에 그 당시 동식물이 잔존하면서 북극종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이들 잔존 생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너조(일본어로 천둥의 새라는 의미의 새로 '라이초'라고 읽으며, 폭풍 속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비둘기보다 크고 닭보다 작은 너조는 일본의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새입니다. 너조가 서식하는 북반구 최남단은 미나미 알프스 국립공원 제일 끝에 있는 데카리다케산입니다. 너조는 가능한 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새로 완벽하게 위장하는 뛰어난 보호색의 달인입니다. 아침부터 가을까지는 얼룩 무늬의 깃털이 돌산의 환경에 녹아들지만 겨울이 되면 하얗게 변하여 눈 속에서 발견하기 힘들어집니다.

미나미 알프스의 고산식물 중에는 상당한 수의 북극종이 발견됩니다. 흰색 꽃잎을 가진 세 종류의 꽃, 북악초(일본어로 '기타다케소우'라고 발음하고 '기타다케의 식물'이라는 뜻, *Callianthemum hondoense*), 고위도 북극 전지역에서 발견되는 씨눈바위취(*Saxifraga cernua*), 8장의 꽃잎을 가진 담자리꽃나무(*Dryas octopetala*)를 볼 수 있습니다. 북극풍선장구채(*Silene uralensis*)는 특징적인 흰색과 녹색의 줄무늬 무늬 꽃받침이 있고, 그 꽃받침이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과리가 이것을 부화기로 이용합니다.